

헝가리의 지지 않는 꽃

헝가리 북동부 마을 메죄크베슈드에는 사시사철 꽃이 핀다.
머초 공동체 주민들의 손에서 탄생한 자수, 가구 장식 등
꽃을 표현한 다양한 민속 공예품 때문이다.

Forever Flowers

The Matyó people of Mezőkövesd, Hungary, are
famed for their traditional embroidery and other
folk crafts, decorating them with flowers so
beautiful they made the devil weep.





한 갈래에 속한다. 연원도 깊고 종류도 다양한 헝가리 자수 중에서 머초만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머초 민속 예술과 자수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는 지역 공동체 문화 덕분입니다.” 헝가리 야의 박물관의 무형 문화재 부서 책임자인 에스테르 촌커터카치의 말이다. “컬로처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자수 공예가가 활동하고 있지만, 머초 공동체가 전통 계승에 특히 힘을 모으고 있고, 단결심도 강하고 정체성이 뚜렷하거든요.”

메죄피베슈드는 머초 민속 예술과 문화의 진원지로, 그 안에서도 머초 공동체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은 허더시 구역이다. 이곳에는 초가지붕을 얹은 백색의 단층 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곳의 농가 중 하나가 머초 공예가 보리 키시연코가 살았던 집이다.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니 현지 자수 공예가인 에버 베르타네 치르머즈가 빛바랜 툴립이 그려진 서랍장 옆에 서

메죄피베슈드의 보리 키시연코 기념관에서 에버 베르타네 치르머즈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페이지). ‘머초로저’ 공예 재료 가게에서 판매하는 직물(아래).

Éva Bertháné Csirmaz shows off artwork on display at the Bori Kisjankó Memorial House in Mezőkövesd (opposite). Fabrics for sale at the Matyórózsa Handicrafts Materials Shop (below).

Despite its small size, the Matyó community put Hungarian folk art on the map when its embroidery, furniture painting, decorative art and folk dancing were chosen to represent Hungary at the Paris Universal Exhibition in 1900. There are various branches of Hungarian embroidery, but of all the country’s styles, Matyó is the one that was plac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tyó folk art and embroidery made the [UNESCO] selection because of its community,” says Dr Eszter Csonka-Takács, of the Directorat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Hungarian Open Air Museum. “While other communities, like the embroiderers in Kalocsa, still practice the art, we felt the Matyó community was more unified and defined.”

Mezőkövesd is the epicenter of Matyó folk art and culture, and the heart of the town’s Matyó community is the Hadas district, a cluster of single-story white-washed and thatch-roofed peasant houses. Inside one such house, the former home of Matyó folk artist Bori Kisjankó, local

헝가리 북동부의 한여름, 과란 물망초가 도로변에 줄지어 서 있고, 집들의 뒤뜰마다 아름다운 붉은 장미가 만발해 있다. 이곳 메죄피베슈드는 뷔크산맥 산기슭과 헝가리 대평원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한 작은 마을이다. 메죄피베슈드의 생기 넘치는 여름꽃들이 지고 난 뒤에도 이곳의 장미는 머초 주민들의 전통 자수품 속에서 사시사철 꽃을 피운다.

일명 ‘머초의 땅’이라 불리는 지역은 세 마을로 이루어졌다. 메죄피베슈드를 포함해 터르드, 센티슈트반이 그것이다. “이 지역에 약 2만에서 2만 1000명이 거주합니다.” 머초 민속 공예 협회 회장 주저 베레츠 라슬로네의 말이다. ‘머초’라는 명칭은 15세기 마차시 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세 마을은 주변의 다른 마을들과 종교가 다르다. “머초 마을을 제외한 지역 사람들은 전부 개신교를 믿어요. 그렇지만 머초 사람들은 가톨릭 신앙을 기반으로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죠.”

머초 공동체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헝가리 민속 예술의 보고로 명성이 높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자수를 비롯해 가구 장식, 민속 무용 등이 소개되면서부터다. 헝가리 자수에는 컬로처, 라버프즈 등 다양한 계보가 존재하고, 트란실바니아에 거주하는 헝가리인 세케이족의 십자수도 그중

In midsummer in northeastern Hungary, blue forget-me-nots line the roadsides, while red roses bloom in the back gardens of Mezőkövesd, a small town nestled between the foothills of the Bükk Mountains and the Great Hungarian Plain. But even after the summer flowers are gone, Mezőkövesd’s roses bloom all year round on the traditional embroidered textiles of the Matyó people.

The area known as “Matyó Land” is small, encompassing only three communities: Mezőkövesd and the neighboring villages of Tard and Szentistván. “We’re talking about approximately 20,000 to 21,000 people,” says Zsuzsa Berecz Lászlóné, the president of the Matyó Folk Art Association. The group’s name derives from the 15th-century king Matthias I (Mátyás Király), and the three communitie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s in the region by their religion. “Within this region — with the exception of these three Matyó villages — people follow the Reformed Church. These three villages are bound together by a very strong Catholic faith,” adds Lászlóné.



있었다. 서랍장 위에는 자수를 놓은 오래된 침대보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녀는 진홍색 장미와 선녹색 잎을 수놓은 까만 앞치마를 보여 주면서, 이 마을의 자랑인 자수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었다. “한겨울에 악마가 아름다운 머초 소년을 납치했어요. 그러고선 소년의 연인에게 몸값으로 꽃 한 다발을 요구했죠. 겨울이니 소녀는 꽃을 한 송이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바늘과 실을 이용해 밤새 자신의 앞치마에 꽃을 수놓았어요. 그녀가 꽃발을 수놓은 앞치마를 악마에게 보여 주자, 악마는 그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연인을 돌려보냈죠.”

이야기 속 재치 넘치는 소녀처럼, 머초 주민들은 ‘플랫 스티치’ 기법을 이용해 검은색이나 흰색 천 위에 알록달록한 꽃무늬를 수놓는다. 19세기 이래 머초 자수품과 꽃무늬 디자인은 주변 마을로 퍼져 나갔고, 메죄피베슈드의 머초 박물관 유리 전시함에 보관된 전통 의상은 물론 현지 여성들과 헝가리 가내 수공업 종사자들의 다양한 작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자수 공예는 오늘날까지 머초 공동체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머초 민속 공예 협회는 머초 공동체의 전통을 수호하고, 문화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중 하나가 3년마다 개최되는 ‘100송이 장미 자수 대회 및 전시’다. 개막식 당일, 머초 박물관 바깥의 아카시아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는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머초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남녀가 녹음된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머초 전통 춤 동작을 선보인다. 자수를 놓은 ‘무거운’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춤사위는 한없이 가볍고 날아갈 듯 경쾌하다. 춤 공연이 끝난 뒤, 구경꾼들은 자수품을 진열한 전시실을 찾는다. 꽃수로 뒤덮인 전통 양식의 식탁보가 있는가 하면, 최신 패션쇼에 소개될 법한 현대적인 의상도 있다. 올해 자수 대회에는 뛰어난 자수 공예가들이 참가해 30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다.

“전시회 개막 이후 우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현지 ‘머초로저’ 공예 재료 가게의 주인인 에버 포터가 직물 견본과 다채로운 색상의 자수용 실을 판매대 위에 펼쳐 놓으며 말했다. “이곳은 각각의 자수 형식에 잘 어울리는 독특한 재료와 직물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게예요. 십자수를 놓기 좋은 리넨 같은 원단도 준비되어 있죠.” 작품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수 공예가가 작품 하나 완성하는 데에는 최대 200시간이 걸린다고 베르너데트 켈레이네 퍼프가 말했다. 그녀는 자수 대회의 대상 수상자이자 보르소커 자수 그룹의 대표다. “식탁보든 의류든, 일단 형식과 색상을 정하면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종이에 구멍을 뚫어 만든 스텐실 도안을 직물 위에 놓고 찍어 내죠. 이후 손으로 자수를 놓아요.”

embroiderer Éva Bertháné Csirmaz stands beside a chest painted with fading tulips and piled high with aging embroidered bedclothes. She holds up a black apron stitched with crimson roses and emerald leaves as she recounts a local folk legend about the origin of the town’s famous embroidery. “The devil abducted a beautiful Matyó boy in the middle of winter, demanding a bouquet of flowers as ransom from his sweetheart,” she says. “Of course, the girl couldn’t find a single flower, so instead she took a needle and thread and embroidered her apron all night long. When she presented the devil with the fabric, he wept from its beauty and returned her love to her.”

Just like the girl in the story, the Matyó flat-stitch colorful floral motifs onto black or white fabric using a technique known as free-hand embroidery. Ever since the 19th century, Matyó embroidery and its floral designs have been woven into the surrounding community, from the traditional folk dress tucked away behind glass in Mezőkövesd’s Matyó Museum to contemporary fashion stitched by local women and textiles in homes across Hungary. Even today, the revival of this art form continues as the backbone of the modern Matyó community.

The Matyó Folk Art Association, founded in 1991, safeguards community traditions and organizes cultural events, including the *Hundred Roses* Embroidery Contest and Exhibition, which is held every three years. Beneath the branches of a flowering acacia tree outside the Matyó Museum, there aren’t enough chairs for the crowd attending the opening of this year’s event. To recorded violin music, a young couple decked out in full Matyó garb twirls effortlessly in traditional dance steps, even under the weight of heavily embroidered clothes. After the dance performance, the crowd fills an exhibition hall curated with embroidered fabrics that range from traditional flower-covered tablecloths to garments you could imagine on high-fashion catwalks.

It can take up to 200 hours to embroider a single piece, depending on its scale and complexity, explains Bernadett Zeleiné Pap, the winner of the contest’s first prize and leader of the Borsóka Embroidery Group. “Once I’ve decided on the piece — will it be a tablecloth or a piece



전통 의상을 입은 남녀가 머초 민속 공예 협회 행사에서 춤을 선보이고 있다. A couple in traditional Matyó clothing performs a dance at the opening of a Matyó Folk Art Association event.

정원에서 형성된 문화 메죄코베슈드에서 나고 자란 퍼프는 어린 시절 자수와 사랑에 빠졌다. “어머니와 할머니께 자수를 배웠어요. 실을 바늘에 꿰는 것이 저의 첫 과제였죠. 다양한 색상의 실을 바늘에 꿰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커 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와 함께 저만의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자수에 대한 이러한 애정과 열정은 메죄코베슈드의 문화와 자수 전통 속에서 길어 올린 것일 터이다.

머초 민속 공예 협회의 작업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직물 조각과 자수를 반쯤 마친 듯한 작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퍼프는 책상 아래에 놓아둔 가방에서 자신의 자수품을 꺼냈다. 그녀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양식을 뒤섞어 작품을 만든다.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된 직물 연구를 좋아해요. 제가 대상을 받은 작품은 200년 된 디자인을 활용한 것이었죠. 저는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즐깁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빨간색으로 자수가 놓인 짙은 감색 시프트 드레스를 가리켰다. “이것도 제 작품이에요.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잘 어울리는 자수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도 수를 놓았어요.” 보리 키시연코 기념관에서 치르머즈가 양모를 뒹뒹 가죽 소재의 자수 조끼를

of clothing — and the colors, I draw the pattern in pencil. Then, we punch holes in the paper and stencil it onto the fabric and then we embroider it by hand,” she says.

Born and bred in Mezőkövesd, Pap fell in love with embroidery in her childhood. “I learned to embroider from my mother and my grandmother. My first task was to lace a needle with a thread. I would use different colors and practice weaving the thread into the needle, and as I grew up, I kept on learning and improving my craft.”

In the Matyó Folk Art Association’s workshop, pieces of fabric and half-embroidered items lie scattered on the tables. Pap pulls her embroidery out of a bag tucked under the table. Her work varies in color, style, tone and stitching, mixing traditional elements with contemporary

머초 박물관에 전시 중인 도구와 재료(아래).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100송이 장미 자수 대회 및 전시’에서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오른쪽 페이지).

Tools and materials on display at the Matyó Museum (below). Visitors look over pieces at the *Hundred Roses Embroidery Contest and Exhibition*, which is held every three years (opposite).



가리키며 말했다. “보리의 할아버지인 야노시 너지는 가죽 자수 분야의 유명한 장인이었어요. 가죽에 바느질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 남자들 몫이었어요. 여자들은 직물 자수를 해야 할 때나 나서게 되었죠.” 보리 키시연코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자수 공예가이자 문양 제작자로, 머초 자수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티프를 개발한 이다. 또 그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메죄코베슈드 고유의 자수 양식을 정의하기도 했다.

허더시 구역에는 보리 키시연코 기념관을 비롯해 ‘화가와 직조 공예가의 작업실’ ‘장난감 박물관’ 등 머초 문화의 전통을 상징하는 역사적 건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강 쿠키 제빵사부터 가구 장식 전문가 등 오늘날에도 머초의 전통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현지 전문가들의 일터도 곳곳에 있다. 서볼치 코바치는 허더시 관문 바로 옆 정원의 의자에 앉아 나무판 위에 꽃을 그리고 있었다. 가구 장식 역시 머초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로, 25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저희 아버지도 가구 장식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수 공예가였고요.” 코바치의 말이다. “여섯 살 때 그림 그리는 아버지를 보고, 저도 하고 싶었어요. 자투리 나무 위에 탱크, 총, UFO를 그리면서 아버지께서 뭘 그리시는지 훑쳐보곤 했죠.

styles. “I love studying really old textiles,” she says. “The piece I won first prize for was based on a 200-year-old design. I love experimenting with both old and new styles.” She stops and points to her navy blue shift dress with red embroidery. “This is also my own work. I try to embroider something for every occasion.”

Over at the Bori Kisjankó Memorial House, Csirmaz explains that men used to embroider too, pointing to a leather vest with a wooly backing. “Bori’s grandfather, János Nagy, was one of the most famous leather-making masters. It was hard labor to pull the thread through the leather, so women only took over when embroidery moved on to textiles.” On the wall behind Csirmaz is a pencil drawing of a hundred detailed variations of roses by Kisjankó, a sketch for her colorful *Hundred Roses*, which is on display at the Matyó Museum. Kisjankó became a master embroiderer and pattern inscriber, creating the richest motifs in Matyó embroidery and, in a way, defining the style that’s native to Mezőkövesd.

그러다 아무도 안 본다 싶으면 아버지가 그리던 꽃들을 몰래 따라 그렸어요.”

코바치는 머초 자수 셔츠를 몇 개 꺼내더니 펼쳐서 보여 줬다. “베티(베르너데트 젤레이네 퍼프의 애칭)가 이걸 만들어 줬어요. 15년 전에 완성한 작품이죠. 전 그림을 그릴 때 이 옷들을 즐겨 입어요.” 미소를 띤 채 흰 옷 위에 튜 페인트 자국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코바치의 가구에 그려진 장미와 야생화부터 퍼프의 자수품에 이르기까지, 머초 예술품은 현지의 다양한 꽃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자수가 자연의 요소를 모방하는 것은 당연해요.” 퍼프의 말이다. “1900년대 초의 자수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한때 색상이 특정한 의미를 지녔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농부들이 그런 교육까지 받았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장미를 붉은색으로 그려서 사랑을 상징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냥 따뜻한 색이라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울할 때는 평소와 다른 문양을 생각할 테고, 기쁠 때는 세상을 더 다채로운 색으로 인식하겠죠.”

민속 예술이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 시절도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다. 여자의 결혼 여부,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는지 알려 주는 역할까지 했으니까. 젊을 때는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두운 빛깔의 옷으로 바뀌었는데, 이 역시 인생의 여러 단계와 상태를 상징한다. 젊은 여성이 자신의 자수 실력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자리는 결혼식이었다. 신부가 결혼하기 전 공들여 자수를 놓은 옷과 침대보는 결혼식 당일에 손님들 앞에 공개되곤 했다.

여느 전통문화가 그렇듯, 현대적인 문명이 점차 전통적 생활 방식을 잠식하면서 머초 민속 예술도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발 벗고 나서 지역의 전통과 기술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자수 공예는 원래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전수되는 문화였지만, 오늘날에는 메죄콰베슈드 보르소커 자수 그룹 같은 지역 단체에서 기술 전수를 책임진다. “전 20명의 여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퍼프의 말이다. “그들의 도안 작업을 지도하고, 어떤 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직물에 어떤 색상을 써야 하는지 알려 줘요.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제 학생들과 그들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셈인데, 그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러한 노력은 머초 주민의 영혼이 앞으로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살아 숨 쉴 것임을 의미한다. 겨울이 오더라도 메죄콰베슈드와 터르드, 셴티슈트반에서는 계속해서 ‘꽃’이 피어날 것이다. 🌻 글 제니퍼 워커 사진 크리스드 카나

CULTIVATING THEIR GARDEN In the Hadas, you won’t just find historic houses recalling old Matyó life, but also living workshops occupied by artists keeping traditions alive. At the first house beside the Hadas Gate, Szabolcs Kovács sits on a bench in his garden, painting blossoming flowers on wooden panels. Another core part of Matyó culture is the tradition of furniture painting, which goes back 250 years. “My father also painted furniture; my mother was an embroiderer,” Kovács says. “When I was six, I watched my father paint, and I wanted to do it too! I painted tanks, guns and UFOs on scrap pieces of wood, but I’d sneak a peek at what he was painting. I started to copy his flowers in secret when I thought nobody was looking.”

Kovács pulls out a couple of shirts rich with Matyó embroidery, holding them up. “Betti [Bernadett Zeleiné Pap] embroidered this one, and this one is 15 years old. I like to wear these while I paint,” he says, smiling, as he points to the flecks of paint on the white fabric.

From the wildflowers on Kovács’ furniture to Pap’s embroidery, Matyó art is filled with the native flora. Once, though, the art held more meaning than just decoration. It was used to signal a woman’s marital status and even how many children she had. Brightly colored costumes would morph into darker hues with age, signifying various stages and statuses in life. A girl’s embroidery skills were always on show, from her clothes to the bedding she’d sew that would be paraded through the streets on her wedding day.

As modernity encroached on traditional lifestyles, folk art grew endangered until the Matyó community took measures to preserve it. While crafts were initially pass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today this teaching is done by organizations like Mezőkövesd’s Borsóka Embroidery Group. “I have 20 women under my instruction,” says Pap. “I help them draw the designs, teach them which thread to use, what color should be used for the base, and then they’ll create the rest. I hope I can guide them towards creating something beautiful.”

Efforts like these mean that the soul of the Matyó people will live on through their art. In Mezőkövesd, Tard and Szentistván, the flowers will continue to bloom, even in the winter. 📸 By Jennifer Walker Photographs by Chris da Canha

메죄콰베슈드의 허더시 구역에서 활동하는 화가 서볼치 코바치
Painter Szabolcs Kovács at work in Mezőkövesd’s Hadas district.

